

김해신공항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일부 언론에서 “김해 신공항은 결정된 사안”이라며, 김해신공항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께서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김해신공항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애초 목표로 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용역과정에서 안전과 소음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가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신공항입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 7. 17

경상남도 공보관